

2024-06-24 (2024-25호)

06월 24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반기말 수급 무게중심과 1,400원

서울, 6월2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강달러와 약위안 지속 여부 및 반기말 수급에 주로 영향 받으며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75-1,400원이다.

달러/원 거래 상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때도 달러 가치는 빠지지 못했다.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보다 앞선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 등에 달러에 더 힘이 실렸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위안 약세 용인 가능성과 다시 시동이 걸린 엔 약세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대외 환경에 달러/원은 또 다시 1,400원대 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장 시장 위험요인이 불거지지 않는다 해서 '빅 피겨'인 1,400원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시장 참가자도 당국도 모두 마찬가지다.

나홀로 약세를 갈 만큼 원화의 자체적인 약세 요인이 부각되지 않은 만큼 일단 원화는 달러를 필두로 위안과 엔 움직임을 긴밀히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에 있을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지난번과 같은 엔과 원 약세 변동성에 대한 양국의 경고가 담길지 주목된다.

이번 주중 시장을 뒤흔들만한 목직인 경제지표나 이벤트는 예정돼있지 않다.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계속될 테고, 주 후반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주목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지만, 앞서 발표된 소비자·생산자물가지표에서 물가 하향 안정세가 확인된 터라 이에 대한 관심도는 이전보다는 다소 떨어져있다.

다만, 이벤트성 재료로 미국 대선 TV토론회와 프랑스 조기 총선을 앞두고 관련 헤드라인이 시장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한편, 달러/원 환율이 핵심 저항선인 1,400원 앞에서 저항받고 있지만, 반기말 수급은 큰 변수다. 역대 수급도 수급이지만, 이보다는 지난달 말처럼 외인 증권자금 관련 리밸런싱이 원화 변동성을 대거 자극할 수 있다.

미국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이 26일(현지시간) 2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결과 따라 국내 반도체 주가도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기말 수급 무게중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에도 환율이 1,400원 앞에서 방향을 돌릴지, 그렇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1,400원대 진입을 시도하게 될지를 두고 시장 긴장감이 적지 않은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美 PCE 물가지수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국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연준 관계자보다 더 희망적이다.

28일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최근 PCE 수치가 항상 예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4월 수치는 예상치 못한 횡보세를 보였다.

이번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연준과 달리 시장은 올해 거의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 BOJ 정책 긴축 전망

일본은행(BOJ)은 7월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시장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0.25%포인트 인상 확률을 3분의 1 미만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BOJ가 이미 다음 달에 양적 긴축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조치를 취하면 채권 시장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BOJ도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의존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긴축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지출 부진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며, 수요 주도의 인플레이션은 9개월 연속 둔화됐다.

27일 소매판매와 28일 도쿄 CPI 등 앞으로 발표될 주요 거시지표가 전망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BOJ는 24일 6월 회의 주요 의견을 공개한다.

⊙ 유럽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28일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로존의 6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된다.

이 데이터는 7월2일에 나올 유로존 전체 물가 지표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며,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금리를 몇 차례 인하할지 가능하려는 트레이더에게 중요하다.

ECB는 6월6일 금리를 인하했지만 역내 인플레이션과 임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몇 차례 더 인하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을 약 64%로, 6월 회의 전의 80%보다 낮게 반영하고 있다.

상방 서프라이즈는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총선 1차 투표 소집 이후 새로운 정치적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 유로와 파운드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재밌다. 영국은 한동안 정치적 불안의 핫스팟이었고 유로존은 비교적 평온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프랑스의 조기 총선으로, 극우파가 과반을 차지하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트레이더들은 유로 가치를 한 달래 최저치로 끌어내렸고, 앞으로 며칠 동안 추가 약세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파운드는 7월4일 영국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파운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달러 대비 주요 통화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유로 대비 거의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영국의 무분별한 감세 계획이 시장을 뒤흔들었던 리즈 트러스 스타일의 에피소드가 프랑스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로에 대한 불안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파운드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 신흥시장 통화정책 결정

단기내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이 사라지고 달러 강세가 많은 통화에 부담을 주면서 글로벌 완화 사이클을 주도하려는 많은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탄력을 잃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27일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2일 투표에서 여당 연합이 깜짝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과 선거로 인한 폐소화 변동성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제한적인 정책 설정이 적절하다고 밝혀온 필리핀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같은 날 회의를 열고 금리를 17년 만의 최고치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뒤늦게 금리 인상 사이클에 합류한 터키는 5월에 75%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들이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50%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대형 기술주 랠리 지속될 듯

뉴욕, 6월24일 (로이터) -

미국 대형 기술주의 급격한 랠리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부문들에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다.

올해 S&P500지수는 14.6% 상승했지만, 지수 상승의 대부분은 각각 28.2%와 24.3% 상승한 정보기술과 통신 업종에 집중됐다. 그 다음으로 성과가 좋은 업종인 유틸리티는 연초 대비 9.5%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나머지 시장은 미지근하다.

많은 투자자들은 기술주의 견조한 실적과 인공지능의 혁신적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술주가 견고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연초 대비 155% 상승 등 큰 폭의 주가 상승은 기술주 랠리가 과열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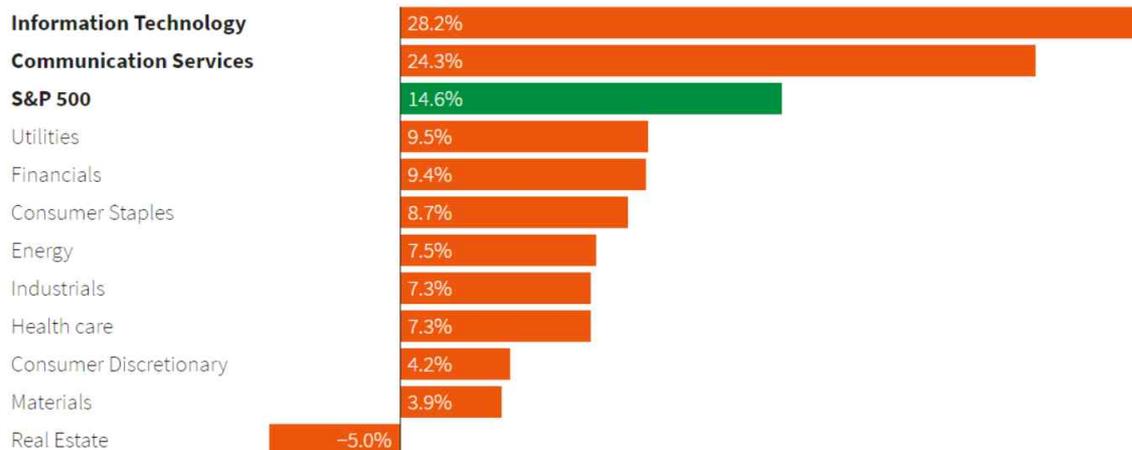
소형주나 금융 및 산업주 등 소위 가치주처럼 시장에서 뒤쳐진 종목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일 수 있다.

마이클 퍼브스 탈백켄캐피털어드바이저스 CEO는 "엔비디아는 로켓처럼 빠르게 상승해 왔으며,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때 출구를 마지막으로 통과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이 주식 랠리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엔비디아를 매각한다면 그들이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가치주와 경기순환주"라고 말했다.

Tech continues to power S&P 500 market rally

A surge in AI-related stocks have pushed the tech and communication services far above any other sector in the U.S. stock market this year.

● S&P 500



Source: LSEG

대형 기술주 이외 종목으로의 로테이션은 시장 랠리가 다시 소수의 종목으로 좁혀지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제기된 대형주 집중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S&P다우존스인덱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S&P500지수의 총 수익률 14% 이상 중 약 60%는 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개 기업, 즉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 알파벳, 아마존닷컴이 주도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가늠하면서 28일 인플레이션 데이터 등 경제지표도 투자자의 포지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퍼브스는 여러 지표에 따르면 기술주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낙관론이 높은데, 이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되는 의미의 지표로 보고 있다. 6월19일로 끝난 주에 AAI 심리 서베이는 역사적인 평균을 약 8%p 웃도는 44%로 보합세를 보였다.

BofA 글로벌 리서치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펀드 매니저들의 심리는 2021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자들은 현금 포지션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렸다.

래리 텐타렐리 블루칩데일리트렌드리포트 수석 기술 전략가는 VanEck 반도체 ETF의 전월 대비 13% 상승은 AI 열풍이 너무 지나쳤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하락장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기술주와 성장주를 오래 멀리하리라는 징후는 거의 없다.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100지수는 400% 이상 상승한 반면, 러셀1000 가치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약 70% 상승했기 때문에 기술주를 피하는 베팅은 손해를 보았다.

올해 러셀 가치지수는 5.6%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소형주에 대해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여, 러셀1000지수는 연초 대비 0.5% 하락했다.

하버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이슨 알론조는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매수하여 이익 실현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이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추세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6월24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6월24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공급망 현장방문 (09:30)

6월25일(화)

- ⊙ 한국은행: 2024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일재무장관회의 (14:30)

6월26일(수)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금통위 본회의(비통방) (09:00)
- ⊙ 기획재정부: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제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09:3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10:00)
-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11:00)
- ⊙ 통계청: 2024년 4월 인구동향 (12:00)

6월27일(목)

- ⊙ 한국은행: 2024년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전문가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11: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대주단 협약 개정 (12:00)
-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17:00)
- ⊙ 한국은행: 2024년 7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 ⊙ 기획재정부: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17:00)
- ⊙ 한국은행: 총재 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6월27일~7월1일, 스위스 바젤)

6월28일(금)

- ⊙ 통계청: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제통합계좌 개통식 (10:00)
- ⊙ 기획재정부: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11: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컴퓨터 관련 여가(recreational computing)와 노동공급 (12:00)
- ⊙ 한국은행: 2024년 1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16: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6월24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6월17-24일		중국	FDI (YTD)	5월		-27.90%
6월25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5월		-0.23
6월25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4월		0.1%
6월25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4월	0.3%	0.3%
6월25일	23:00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6월	100.0	102.0
6월26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6월21일 주간		210.4
6월26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5월		1.386M
6월26일	23:00	미국	신규주택착공	5월	0.640M	0.634M
6월27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5월	2.0%	2.4%
6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5월		4.3%
6월27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5월	1.5%	1.3%
6월27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5월		0.2%
6월27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6월		-0.39
6월27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월	96.2	96.0
6월27일	18:00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	6월	-14.0	-14.0
6월27일	21:0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22일 주간	236k	238k
6월27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5월	0.0%	0.6%
6월27일	21:30	미국	GDP 확정치	1분기	1.4%	1.3%
6월27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5월	2.5%	-7.7%
6월28일	08:30	일본	도쿄 CPI	6월		2.2%
6월28일	08:30	일본	실업률	5월	2.6%	2.6%
6월28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5월		-0.9%
6월28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5월	0.4%	0.3%
6월28일	21:30	미국	소비 MM	5월	0.3%	0.2%
6월28일	21:30	미국	PCE 물가지수 MM	5월	0.0%	0.3%
6월28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6월	40.0	35.4
6월28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6월	65.7	65.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24일 (월)

- ⊙ 일본은행 6월13-14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센트럴 बैं킹 연례 컨퍼런스 개최사 (오후 4시)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CNBC "스쿼크 박스" 출연 (오후 9시30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프레스클럽 등 주최 행사에서 연설 (25일 오전 3시)

6월25일 (화)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정책 교류 행사서 연설 (오후 8시)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 (26일 오전 1시)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세인트루이스·시카고·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 미드웨스트 사이버 워크숍 사전녹화 개최사 (26일 오전 3시10분)

6월27일 (목)

- ⊙ 스웨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4시30분)
- ⊙ 영란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오후 6시30분)

6월28일 (금)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글로벌상호의존센터/프랑스 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7시40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과 인스티튜트 리더십 카운슬 주최 컨퍼런스 화상 토론 참석 (29일 오전 1시)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종합) - 日, 연이은 엔화 약세 경고... 개입 가능성 주시

도쿄, 6월21일 (로이터) -

칸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은 21일 일본 당국은 경제를 해치는 투기적이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 움직임에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칸다 재무관은 환율 개입 질문에 대해 "시장 추세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이 펀더멘털 따라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개입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시장에 투기적이고 과도한 변동성이 있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발언은 달러/엔이 4월29일 이후 처음으로 159엔 위로 오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아시아시간에서 달러/엔은 159.12엔을 기록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당국이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엔화 약세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4월29일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0.245로 3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4월과 5월에 9조 8천억엔(616억달러)을 외환시장에 개입에 사용했다.

이러한 조치로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시험하는 것은 막았지만, 연료 및 식품 수입 비용 상승으로 가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엔화 가치 하락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시장이 새로운 개입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일본을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추가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미국이 일본의 외환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과도하고 무질서한 통화 움직임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G7 합의에 따라 미국 및 다른 국가 당국과 긴밀히 소통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일본의 최근 환율 개입이 일본을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요인이 아니라면서도, 자율적으로 거래되는 외환 시장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개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 전문가 반응) - 스위스 중앙은행, 2번째 금리 인하... 달러/스위스프랑

런던, 6월20일 (로이터) -

스위스 중앙은행은 20일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해 현재 글로벌 정책 완화 사이클의 선두주자로서의 중앙은행 입지를 유지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날 정책금리는 1.25%로 25bp 인하했다. 로이터 사전조사에서는 애널리스트 3분의 2가 3월에 이어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유로/스위스프랑은 약 4개월 만의 최저치에서 0.4% 반등했고, 달러/스위스프랑은 0.6% 올랐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해외 전문가들의 코멘트이다.

◆ 막심 보테론, UBS 이코노미스트

"스위스 중앙은행은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인정했고, 이는 금일 금리 인하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 인하로 정책 금리는 이제 1.00%로 추정되는 최종치에 가까워졌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둔화하거나 스위스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 한 추가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애드리안 프렛존, 캐피탈 이코노믹스 유럽 담당 이코노미스트

"노동 보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매우 고착화되어 있어 기초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더이상 없기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올해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피터 반덴 호트, ING 이코노미스트

"1분기 스위스 GDP 성장률이 양호했기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실질적인 시급성은 없었지만, 여전히 양호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은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 카스텐 주니우스, J 사프라 사라신 수석 이코노미스트

"기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하고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다시 낮아지면서 예상대로 스위스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의 중요한 트리거 중 하나는 최근 임대료 제외 CPI가 1% 이하로 떨어지고 경제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9월에 0.25%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통화정책을 중립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다."

◆ 게로 정, 미라보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위스 중앙은행의 25bp 인하는 놀랍지 않다. 이는 3월 시작된 통화 완화 사이클이 이어진 것이다.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고, 최근 성명에 따르면 지속될 글로벌 디플레이션 추세에 부합하며, 5월 말 연설에서 총재가 밝힌 것처럼 실질 금리를 포함해 현재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번

결정은 시기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3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데 왜 지금 멈출까? 이런 점에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덜 제한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과 일치한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한은 물가안정보고서) - 주요 기초 물가지수 2% 근접... 성장률 확대 따른 추가 물가 압력 제한적

서울, 6월18일 (로이터) -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변동성을 보인 것과 달리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초적 물가는 줄곧 둔화해 최근 2%대로 낮아졌고 다수의 기초 물가지수가 2%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경직적물가(소비자물가 품목 중 가격 조정 빈도가 낮은 품목)는 2.5%로 2%대 중반에 머물고 있지만 근원물가는 2.2%, 가중중위수물가(소비자물가 개별품목 상승률 분포상의 가중중위수에 해당)는 2.0%, UIG(Underlying Inflation Gauge, 소비자물가 개별품목 상승률의 중장기 공통성분을 모형을 통해 추출)는 2.1%, 조정평균물가(소비자물가 개별품목 상승률 분포상의 극단치를 제외한 것)는 2.0%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수가 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둔화됐다.

특히 1월에서 5월까지 근원물가의 품목별 상승률 분포를 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고인플레이션 기간과 비교할 때 분산이 줄어들며 하향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측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올해 근원물가의 전년말 대비 누적상승률의 궤적을 보더라도 개인서비스는 과거 평균 수준으로 둔화됐고, 근원상품은 4월까지 고인플레이션 기간(2022년~2023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5월 들어 다소 둔화됐다.

한은은 1분기에 국내경제 성장세가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적인 물가 압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물가 영향이 작은 순수출 증가가 1분기 성장세 확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데다 1분기 소비 개선이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들어 높아진 환율, 성장세 개선 등에 따른 물가의 상방압력이 있으나 기초적 물가와 물가 상승모멘텀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유가 및 농산물가격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공급측 상방리스크와 맞물려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위해서는 농산물가격과 국제유가의 움직임, 기업의 가격인상 확산 정도, 내수 흐름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승규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